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입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오늘 교회학교 교사임명식

깊고도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모든 이들에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명은 너무나 귀중하여 확실한 소명감 없이 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뿔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귀중하고 어려운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성도들을 2002년도 각 교회학교의 교사로 임

명하는 교회학교 교사임명식을 오늘 주일예배시간에 갖게 된다.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맡겨 가르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각 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생명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을 내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고 보살피는데 앞장선다.

## 아담과 이브의 만남

### 12월29(토)오후3시

대학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와 혼인을 하기 위해 마련되는 아담과 이브의 만남 행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대학-청년부원들이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시간을 귀히 여겨 먼저 이종윤 목사가 젊은

이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연세대학교 이성호 박사를 특강강사로 모셔 좋은 교양도 쌓게 되며 이기봉 교수의 레크레이션 지도를 통해 친교의 시간도 갖게 된다. 회비는 5,000원이며 8층 만나 홀에서 가벼운 간식과 식사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청년부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신년 신앙 수련회

서울 강남노회 교육부는 노회산하 교회연합 신앙수련회를 새해 1월14일(월)오전9시30분부터 우리교회에서 갖는다.

강사로는 민경배교수(연세대), 박종순 목사(충신교회)로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개회설교는 이종윤 목사가 맡는다.

## 2002년 전도왕 시상

전도위원회는 2002년 전도왕 시상을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기로했다. 전도왕 선발 기준은 새가족 등록카드의 인도자 란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전도왕들에게는 푸짐한 부상이 준비되어 있다.

## 세례교육과 문답식

12월 학습과 세례식의 일정이 확정되어 오는 12월19일(수) 수요일2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지난 9일 주일에 가졌고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오늘 16일 주일 2부 예배 후 606호에서 실시된다. 오늘(16일, 주일)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는 내일 17일(월) 오후 7시 509호에서 추가로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하면 된다.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에 602호에서 있다.

## 기독교 방송에 서울교회와 청년부 소개된다

12월 20(목)저녁 9시 기독교방송 "살롬 여러분"시간 '우리교회는'코너에 10-15분 가량 청년부 담당 고경선 목사와 송인권 집사 노창훈 회장 나소연 부회장이 출연 하여 서울교회와 청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독교 방송은 가장 대중화된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FM 98.1MHz, AM837kHz에서 방송되고 있다.

이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개역개정판 마 1:21-23)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which means, "God with us." (NIV Mt 1:21-23)

## 송구영신예배

-새해0시에-

해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영신예배가 12월31일(월)밤11시30분 에 소등하고 새해 0시에 초에 불을 밝힘으로 드려진다.

모든 이들은 12월을 반성과 회개의 시간으로 경건하게 보내며 앞으로 밝아오는 2002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번 허락하신 주신 특으로 알고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린다.

### 태신자 명단

김유승,민대식,이상원, 정상자, 박준희,박승호,이민우, 감상현,오병선, 고서희, 최진아, 이춘규, 김동익,김중순,류관철,김정순,송선희,김성영,김순자, 이현주, 박순득, 김충렬,주효상,김효남,이중수,이주연,우혜숙,에미진, 양승호, 차승준, 최지선 정승원,오소민 (다음호에 계속)

## 선교회,전도회별 연령 정정

선교회(전도회)	출생연도	나 이
빌립 / 도르가	63년~72년	30세~39세
안드레 / 루디아	58년~62년	40세~44세
베드로 / 뢰뵈	53년~57년	45세~49세
바울 / 마리아	48년~52년	50세~54세
엘리아 / 에스더	43년~47년	55세~59세
모세 / 한나	38년~42년	60세~64세
아브라함/사라	37년이상	65세 이상



## ... 순례자 교회 사랑 캠페인 ...

† 여러분은 주차관리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했습니까?  
† 지하1층 주차장은 새가족에게 ...

이사야서 강해

# 교회의 번영

## (이사야 54장 1 - 6절)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모으심은 백성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적으나 그의 자비는 크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나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중운 목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을 적용시킨다면 이것은 그들이 자기 땅에 정착한 후에 있을 인구증가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자녀 없는 여인의 상태와 쓸쓸하고 고독한 과부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빼앗긴 재산도 인구도 번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 1. 교회는 고난을 받을수록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1-3절)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1절).

"인태치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 홀로된 자"는 같은 말로서 바벨론에 갇혀간 유대 민족,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과부처럼 세상에서 외로운 단체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는 내적 성장이 되는 기회이므로 더욱 왕성해집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2절).

장막터로 비유된 하나님의 교회가 넓게 확장될 것입니다(2절). 옛날 유목 생활의 처소는 장막이었습니다(왕상 12:16).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많은 자식이 있어서 장막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는 긴 밧줄과 더 큰 말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펼쳐야 했습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교회를 이와 같이 장막으로 비유한 것은,

①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하심과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교회당과 시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를 보잘것없는 장막으로 묘사했습니다.

② 장막은 자주 옮겨야 되듯 지상 교회 역시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가 떠난 곳은 쫓대를 그곳에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은혜가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며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왕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3절).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인해 황폐했던 유대 땅이 재건되어 국운이 더욱 왕성하게 될 것을 가리키나 그보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방세계가 개종되고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

성이 얼마나 왕성하게 퍼지는지 물어 넘치듯 사랑으로 넘쳐흐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동행한 증거입니다. 강물 줄기가 좌우편 독으로 터지듯 복음도 사랑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세상에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열방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광야 같은 이방 세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 2. 교회의 위로와 존귀 (4-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4절).

하나님은 네 지경의 험소함과 네 자녀의 적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대적들은 네 험소함과 적음을 들어 너를 비단하였지만 그런 비단이 이제 없을 것이니 젊었을 때의 수치, 곧 애굽에서 당한 압제를 잊게 될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 곧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일이 꿈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 신봉되어진 이단의 무리로 비단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열방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을 때 젊었을 때의 수치는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초년기에 당한 수치와 치욕은 기억도 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으로 위로와 존귀를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으므로 위로를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왜 위로와 존귀를 받습니까?

- ① 구약교회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므로 번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는 자란 1절의 과부라는 말에 대한 해석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우상숭배자를 음란한 자, 간음한 자, 호색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간음을 책망하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과부의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롬 7:4). 하나님이 교회의 남편이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를 낳아 길러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것이 고한 것입니다.
- ②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불가항력적 권능과 절대적 주권과 우주적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을 회개하도록 하여 돌아오게 하므로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일컬음이 되실 것입니다.

③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서 구약 교회를 주재하시고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신약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로 신약교회는 위로와 존귀를 받습니다.

④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교회의 남편이므로 이것은 성도에게 큰 위로며 성도는 또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 3. 하나님의 큰사랑을 받은 교회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6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부르시어 빼앗겼던 아내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마치 남편과 사별했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 버림 받았거나 또는 불화로 인해 버림받은 여인과 같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초조하고 우울증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거절 당하고 배신당한 사람처럼 불만에 차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외면 당할까봐 근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7-8절).

교회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일세력이나 버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오신 하나님의 자비는 몹시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위로하러 오셨고 그 위로는 고난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불러내셨습니다(6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모으시어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30). 하나님은 곳간에 곡식을 모아 넣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에 넣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모으심은 백성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적으나 그의 자비는 크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나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 날 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동설한의 겨울이 오면 추위와 굶주림의 위기를 맞이할까 봐 지레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딘가 어색하다. 오히려 겨울이 오는 것을 숨가쁘게 기다리는 스키인 이상의 기대치가 있어야 하고 겨울 자체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아랫목의 화롯불을 벗삼아 고구마와 밤과 감자를 구워먹는 낭만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입술과 손끝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려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며 배꼽이 아플 정도의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니 겨울을 맞을 준비를 봄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땀 흘리는 여름과 수고하는 가을걸이를 거칠 줄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겨울에 다음



## 겨울이 오면



### 김광신 장로 (12교구)

해의 봄을 준비하고 여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겨울을 매해 겨울이 올 때마다 새겨두고 매듭지어 두었다가 기쁨과 감격으로 영접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특히나 이번 겨울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가깝다고 느끼는 자에게는 “겨울준비 완료선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겨울이 싫고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빼고 싶지만 누구의 힘으로도 겨울이 생략될 수 없기에 겨울 앞에 더욱 겸손하여야겠고 겨울준비를 위한 월동대책에 전심전력해야 하겠다.

마지막 겨울, 최후의 겨울을 남겨놓고 있다면 지금처럼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할 수는 없는 법인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창고를 늘릴 생각과 먹고 마실 궁리만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번 겨울은 역사적인 계절로 기억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계절로 이름지어 보고싶은 충동이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고 눈 오는 산언덕을 징글벨과 함께 걸을 것이며 홀로 외로움에 지쳐 지내시는 오두막집의 할머니를 찾아가서 캄캄 놀랄 소식을 내가 전해드리고 싶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ですよ” 이 말을 끝으로 올해의 겨울을 마감하고 싶다.



## 사랑으로 주신 장미

### 김사라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원)



고요한 겨울 밤,

별빛 밝게 비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장미꽃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 '겨울장미'를 연주합니다.

그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는 절기 때마다 헨델의 메시아나 하이든의 천지창조 등의 대곡을 연주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밝고 감미로우며 그러면서도 경쾌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장미는 이번 성탄절기 찬양의 키포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장미에 비유한 것이 조금은 낯설지만 밝고 발랄한 풍의 이번 칸타타는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히 퍼질 때

천사도 기뻐서 별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도 천사 못지 않게 춤을 추는 심정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토요일마다 연습한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빨리 맞는 찬양대원들은 참으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성탄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아름다운 칸타타로 여러분을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가 기도합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전광혜 (터키 선교사)

사랑하는 서울교회 식구들께 드립니다.

주님의 환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벌써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알리 이흐싼'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년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터키에서도 모슬렘이 강한 코냐(이코니온) 출신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도 소설같이 느껴졌고 설교를 들어도 단지 좋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를 놓지 않고 1년동안 교회 출석하도록 도우셨

습니다.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에 찬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드디어 성경의 진리를 서서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혀 성탄의 분위기를 만날 수 없습니다. 썰렁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상 만들어 놓은 장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게 하는 북적대는 한국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마다 플라스틱 소나무에 성탄장식을 해 놓습니다. 터키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올해는 방송 프로그램의 피해가 저희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와서 보고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

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알리 이흐싼이 계속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가정이 구원을 맛보도록

둘째, 이곳의 한국 사역자들의 보호하심을

셋째, 세워진 교회들이 구원을 드러내도록

넷째, 성탄절을 맞이하여 터키인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다섯째, 저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기를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탄생의 종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erry Christmas!!!

2001년 12월 6일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빛진 자된 전광혜 드림

## 2002년 남선교회 · 여전도회 임원 명단

남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빌립 (30~39)	이규정	성춘모	박형수	김병호	유태서	한선규
안드레 (40~44)	이성득	김금준	김시환	최차순	유영준	정세형
베드로 (45~49)	김운호	김규태	이동만	박경우	장두현	마상수
바울 (50~54)	고경선	조정식	신용식, 양춘경	김중근	이동권, 김광룡	오광환, 조동완
엘리아 (55~59)	윤영국	김광신	오정수, 장양일	김관홍	유을상, 김대웅	정무균, 이광열
모세 (60~64)	이성득	김영주	조성엽	이경구	이우상	송성식
이브라함 (65이상)	정윤돈	김진호	박두영	김하중	장영택	안창휘

여전도회	지도교역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도르가 (30~39)	이규정	박민숙	김현주	김미선	송미자	박한옥, 정수진
루디아 (40~44)	이성득	김유경	조미환	하 숙	이은자, 이명신	박순복, 이혜선
뵤뵤 (45~49)	김운호	김영식	한정아	허 숙	정경자	김선영
마리아 (50~54)	고경선	이영숙	최일춘	백정순	신동기, 김현정	최소희, 이영희
에스터 (55~59)	윤영국	김숙자	김정희	김윤자, 전용순	이인선, 이은희	여영숙, 장효옥
한나 (60~64)	정윤돈	이규희	양옥자	이부자	김명숙, 이경선	전행자, 김연옥
사라 (65이상)	정윤돈	한금희	이남복	고후덕	송옥혜, 홍광숙	김혜자, 국산옥

## 주차안내

주일 1부 예배부터 찬양예배 까지 계속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타고 온 차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주차되어있는 차들과 1~2시간 주차한 후 나가는 차들이 섞인 채 주차되어 매 예배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지하주차장은 거대한 혼잡의 도가니로 변하고 만다.

그래서 이러한 혼잡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교회는 장시간 주차되는 차량은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주차질서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협조를 통하여 교회내 주차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도한다.

☞ 어떻게 김포시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는지요?

서울교회 이은진 집사와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을 해서 입당예배 때도 왔었고 이 목사님 책과 테이프도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등촌동에서 김포시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와 옮기는 것 좀 멀더라도 폭넓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려고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 김집사님은 시어머니 되시는 윤집사님과 같은 날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이었는데 저는 결혼 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늦게 신앙 생활하게 되어서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살아오면서 감격스러웠던 일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로왔어요**  
윤기순 집사(78세), 서명조 집사(56세), 김효순 집사(49세), 서승희(20세)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둘째는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 어느 부흥회에 가서 신앙 좋은 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여 임신을 하고 승희를 낳게 된 것, 셋째는 남편이 작년에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서울교회로 옮기게 된 것 등. 이

루 손뼉을 수가 없네요.

☞ 서울교회에서 느낀 점은?

25년 신앙 생활 중 4번째로 옮긴 서울교회인데 이렇듯 새가족 관리가 체계적인 곳은 처음이예요. 매주 양육 서신이 오고, 양육교사가 매주 전화로 기도계획을 물어 오고 매일 저희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강남권의 교회로 옮기는데 대한 불안이 짝 가시고 요즘은 교회생활이 신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동안 개척교회에서 섬기느라 힘든 것 아시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저희들도 빨리 정착하여 서울교회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 승희는 어떤가요?

승희가 내성적이어서 주일은 잘 지키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아요. 앞으로 좋은 친구들과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보고 싶어요.

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자 시작된 이 운동은 해마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젊은이들을 새벽이슬같이 주님 앞에 세웠다.

2002년도 1월 6일에 실시될 세례의 시작과 함께 행해질 순결 서약식은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요일 3:3)라는 주제로 순결서약운동의 필요성과 취지 및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천축, 선배들 앞에서 서약한 대로 지켜나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시간에 서약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깨끗함과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부모들에게는 자기들의 자녀들의 서약을 지켜보면서 참 순결의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모든 교우들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세상을 거슬러 주를 향하여 경건하게 일어나는 서울교회 청소년들의 거룩한 대열에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대지역 성탄 트리 점등식**

목시도 추위지던 지난 13일 목요일 우리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지역 구내에 설치한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전날에 내린 비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 30분 70인 전도대와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대지역강을 모신 가운데 대지역에 모여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성득 목사는 누가복음 2:11~14의 본문 말씀을 읽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점등하는 성탄 트리의 불빛과도 같이 밝은 소식 곧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자고 호소하였고 이 말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 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전하여져 왔다.

우리의 주위를 풍종결음으로 지나간 많은 이들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들었으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퍼져나갈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쉬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한다.



**아빠 엄마는 왜 순결서약을 안하세요?**

98년, 순결서약식을 한 어떤 학생이 부모님에게 물어본 질문이다.

순결서약식은 94년 10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정한 '정직, 절제, 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위임목사님이 제안하여 시작된 13세 이상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전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하는 운동이다.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여 현대인들은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가치관이 진도되어, 성령이 거하시야 할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순결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자신과 가정은 물론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빛

**12월25일 크리스마스의 유래**

"크리스마스"의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12월 25일 설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지 날을 채택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 절(12월 24일 - 다음해 1월 6일)을 하나의 대축제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로마"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 고대 "로마"교회에서 기원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한 년대에 대해서는 335년설과 354년설이 맞서있다. "성탄일"은 그 후 동방 교회로 퍼져나가 "콘스탄티노폴리스"(379년), "카파도기아"(382년) 등에서 지키기 시작했고 교회력의 기원이 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력 기원의 시원이 되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재위원회와 연세 기독교문화회 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이영주 집사·최영혜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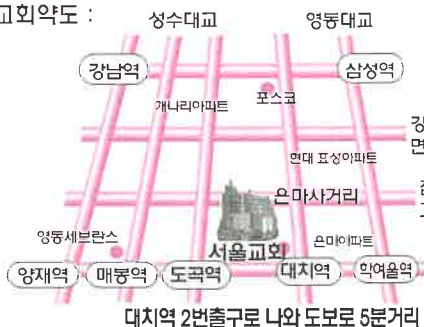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삶되게 하소서
2.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한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지역 2번출구로 나와 도로보 5분거리